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6년 9월 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힘.

-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 수록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8. 3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2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2027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①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③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④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함.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①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 급여 대상: ('26년)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년) 66% 이하(27만명+1.3만명)
 - * 생활 지원: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신규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26년 346호 → '27년 401호, +10억)
-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월 23만원, 3개월)신규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신규
 -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26년 36천명 → '27년 70천명, +30억)
 -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신규
-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혼인지원금 지원신규(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 1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②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37.8억)신규
-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전문인력 '26년 124명 → '27년 135명 (+2.3억)
 -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26년 14개소 → '27년 29개소 (+9.6억)
 -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27년 15개소 (1.7억)신규
 -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5.6억, '26년 18 → '27년 20개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1.4억)신규
-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26년 706명 → '27년 825명 (+20.8억)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26년 540명 → '27년 590명 (+1.1억)
 -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26년 13개소 → '27년 14개소 (+4.5억)
-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02개소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일 4시간 → 8시간, +9.9억)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10억)신규
-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수사·1심 1건당 150만원 → 250만원, +4억)
-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1.5억)신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26년 2.5천명 → '27년 5천명, +1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임대주택 '26년 364호 → '27년 384호, +1억)

④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지역공론장('26년 시범 → '27년 3개 권역, +3.4억)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지원('26년 12개 지역 → '27년 전국 시행, +228억)
-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20개 과정, 44억)신규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함.

-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분석되었음.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9. 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770&tag=&nPage=3

성평등가족부,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 성평등가족부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9월 3일(목)부로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작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어업분야 특화지표개발)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짐.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9

성평등가족부,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제31회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하여 주요 부문별 통계를 기초로 우리사회 남녀의 삶을 조명하는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함.

-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은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 9개 영역 48개 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7월 말 기준 발표된 각 부처 소관 통계를 활용하였음.
- 주요 내용
 - '25년 남녀 모두 노인 1인 가구 수와 비중 증가
 - 50대 이상 인구 비중: ('10) 28.9% → ('15) 34.2% → ('26) 46.0%
 - 각 성별 인구 중 50대 비율('26): 여성 16.6%, 남성 16.7%
 -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증가로 남녀 격차 감소
 - (15세 이상 경활률) 여성: ('15) 51.9% → ('25) 56.9% / 남성: ('15) 74.1% → ('25) 72.7%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 36.5%로 역대 최고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 ('15) 5.6% → ('25) 36.5%
 -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2025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여성 45.0%, 남성 45.7%로 전년 대비 각 5.3%p, 5.2%p 상승
 - 연령대별 상승폭은 여성은 40대(10.3%p), 남성은 50대(9.8%p)에서 가장 큼.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12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1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25.7%)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하였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음.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중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9. 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19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 임금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공시대상회사 3,146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355개를 분석한 「2025년 성별 임금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함.

- 2025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공기관은 2020년 성별 임금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20% 아래로 내려감.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19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26. 6. 9. 공포, ’26. 9. 10.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절차, 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었음.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821&tag=&nPage=2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 임금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공시대상회사 3,146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355개를 분석한 ‘2025년 성별 임금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함.

- 2025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공기관은 2020년 성별 임금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20% 아래로 내려감.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42

성평등가족부, ‘모두의 가족’ 사업, 취약가족 넘어 ‘모든 가족’ 지원으로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정책을 취약·위기가족 중심에서 모든 가족을 포괄하는 보편적 가족지원으로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에 「모두의 가족」 사업 예산 287억 원을 반영함. 이는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예산 250억 원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전년보다 37억 원(14.8%) 증가한 규모이며, 1인가구 지원과 가족관계교육 등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 취약가족 형태에 제공되던 지원이 위기상황에 닥친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임.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42

성평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을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힘.

- 2027년에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한부모가족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함.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49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저출생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6. 8. 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안 제10조의 2제1항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7인)	2026. 9. 1.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방임 조기 발견 노력(안 제5조 및 제15조의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7인)	2026. 9. 1.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안 제13조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2026. 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안 제 27조의5 신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2026. 9. 3.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 보호(안 제12조의4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2026. 9.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안 제11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2026. 9. 11.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안 제71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2026. 9.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여성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 9. 1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안 제18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 9. 1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 사용 촉진(안 제76조제1항제2호)

젠더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2026. 8. 31.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안 제11조 제6항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2026. 8. 31.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자인 광고주의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1인)	2026. 9. 9.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면서,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개편됨. 이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 정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1인)	2026. 9. 9.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3인)	2026. 9. 9.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2026. 9. 11.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 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협력 기능을 강화(안 제9조)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여성,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 산업·직업별 성별 임금 격차도 뚜렷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노동시장 성평등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
- ☞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 임금 차이뿐 아니라 임금계층별 분포와 산업·직업별 격차를 함께 분석함.

참고자료

- [배포일: 2026. 8. 31.]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42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일본 남녀공동참획기구(JGEPA), 20년 한·일 성평등 연구협력 이어간다

- ☞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일본 남녀공동참획기구(JGEPA, 이사장 오츠키 나미)는 양 기관의 기존 협력관계를 계승하고 성평등 분야의 연구교류와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각서를 9월 1일(화) 체결했다고 밝힘.

참고자료

- [배포일: 2026. 9. 11.]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4248>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연구보고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2026. 8. 25.	이데일리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가요?"... 15년 키운 할머니가 아들 고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4246645578480&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서울신문	"손녀 15년 키워줬으니 7200만원 주렴" ...아들에 소송 건 할머니, 결말은 [월드픽]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china/2026/09/10/20260910500273?wlog_tag3=naver
[연구보고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획보도자료)	2026. 9. 1.	한국일보	여성 절반 이상 월 300만원도 못 벌었다... 남성은 37%가 500만원 이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9147?ref=naver
	2026.09.01	헤럴드경제	여성 임금, 남성의 64.8%.. 월 154만원 적어	https://www.phmbc.co.kr/www/news/desk_news?idx=204330&mode=view
	2026.09.01	포항MBC	"똑같이 한 달 일하는데..." 男 439만원 vs 女 285만원 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9010627168391
	2026.09.01	파이낸셜 뉴스	맞벌이 여성, 집안일 남성 '2배'... 월급은 '65%'에 그쳤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07606645575856&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2026.09.01	이데일리	여성 임금, 남성의 64.8%.. 월 154만원 적어	https://andongmbc.co.kr/adboard/NewsView84527
	2026.09.07	안동MBC	"너희 둘, 동기 아냐?" 그래도 수천만원 차이 났다...남성 연봉 1억917만원 벌 때 여성은 7877만원[2026 양성평등지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315474201643
	2026.09.01	아시아경제	월급 평균 얼마 받으세요?...남성 "440만원" 여성 "285만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01/20260901500087?wlog_tag3=naver
	2026.09.01	서울신문	"월급 440만원 받으세요? 평균입니다"... 남녀 따져보니 무려 '155만원' 차이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5535?ref=naver
	2026.9. 2.	서울경제	'월 500' 여성에겐 더 멀었다... 임금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여성의 비중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339001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	2026. 9. 7.	아시아경제	"우리 딸이 다녔으면" 임원까지 짹짹 승진...아모레퍼시픽, 100대기업 첫 1위 [2026 양성평등지수]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0314455679316
	2026. 9. 7.	아시아경제	[사설]육아휴직, 이제는 '복귀 후' 경력 돌볼 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710214542645
[연구보고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연구	2026. 9. 9.	조선일보	"누가 좋아서 해, 먹고살려고 하지"... 매일 종로로 출근하는 76세 '박카스 할머니'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9/09/J3C56YUXMNE7VNLNBKLLKCDU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연구보고서]입법 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2026. 9. 12.	헤럴드경제	'15만원 싸게 드려요' 태아 생명 두고 판치는 불법 거래...낙태죄 위헌 7년 제도 공백의 그늘 [세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0983?ref=naver

• 연구자 인터뷰

날짜	매체명	제목	관련 연구자	기사링크
2026. 9. 11.	뉴시스	"공무원 절반이 여성인데... 경찰·소방은 여전히 10%대 그쳐"	김선아 부연구위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1_0003785701
2026. 9. 11.	서울신문	공무원 절반 여성인데... "경찰·소방은 여전히 10%대"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11/20260911500231?wlog_tag3=naver



유관기관 연구동향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육아정책연구소)

🔍 일하는 부모 721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 유연제 및 근로장소 유연제로 구분하고,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제도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를 분석함.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 9. 8.]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3&board_idx=54989&manage_idx=4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